

‘국제 안전 도시’ 광주 인증탈락 기로에 섰다

2016년 세계 365번째 공인
학동참사 등 재난사고 악재
9월 국내 실사 치르고
내년 초 온라인 국제 평가
시, 안전정책 강화 재공인 최선

광주시가 ‘국제안전도시’ 인증탈락의 기로에 섰다. 10년 넘게 공들인 끝에 국내외적으로 인권을 시에 이어 안전도시라는 이미지까지 구축했지만, 학동 건물 붕괴와 도심 하천 초등생 익사사고, 스포츠 행단보다 유모차 참변 등 각종 안전·재난사고가 이어지면서 국제안전도시 재인증이 불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국제안전도시 재인증에 실패한 사례는 수원시가 유일하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9월 국제안전도시 1차 국내 심사에 이어 내년 2~3월께 최종 국제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제 심사는 코로나19를 감안해 화상으로 이뤄진다. 시는 지난 2월부터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위한 학술운역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안전도시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WHO 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1989년부터 시작한 지역사회 안전증진사업이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은 시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스웨덴에 있는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의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공인심사 기준이 매우 까다로운 탓에 안전국가 이미지가 강한 일본 고베시 등도 탈락의 수모를 겪었으며, 인증 후 재인증에서 수원시 등이 탈락하기도 했다. 실제 공인기준도 ▲지역공동체 내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안전증진을 위한 협력 기반 존재 여부 ▲남녀노소를 위한 지속적인 안전 프로그램

방관이 부르는 비극 ‘학교폭력’ ▶6면

전남, 생태환경교육에서 희망을 찾다 ▶14면



메시나 네이마르나... 코파 결승 대결 ▶18면

램 시행 여부 ▲고위험 연령과 환경, 계층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존재 여부 ▲각종 손상 빈도나 원인을 규명할 프로그램 가동 여부 등으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공인 후 사업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재공인 절차까지 거친다.

광주시는 2000년 초반부터 국제안전도시 공인에 도전한 끝에 2016년 4월 28일 국내 11번째, 세계 365번째로 ISCCC로부터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았으며, 올해가 공인 5년째다. 광주시는 그동안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받기 위해 127개 기관·부서·단체를 중심으로 133개에 이르는 안전증진 프로그램을 집중해 왔다.

하지만, 최근 역대급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오는 9월 국제안전도시 재인증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광주에선 최근 학동 건물 붕괴 참사에 이어 도심 하천 초등학생 2명 익사사고 등 150만명 규모의 대도시에서 발생하기 힘든 후진국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스포츠장에서 화물차가 행단보다 건너는 일가족을 덮쳐 3세 여아와 30대 어머니가 숨지고, 여름 폭우로 역대급 수해가 나기도 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대형사고를 극복하고 국제안전도시 재인증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국제안전도시 타이틀을 유지할 지는 미지수다.

시는 실제 재인증을 위해 재해·재난, 폭력예방, 자살예방, 학교안전, 노인낙상, 도로교통사고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6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198차례의 분과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안전문화 3·3·3시민운동 등 안전증진 사업 등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2019년 말 기준 광주시 총 사망자 대비 사고손상 사망자는 9.1%로, 2010년 대비 4.2%, 2015년 대비 0.7% 감소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지수 향상과 재난안전관리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제안전도시는 특성사고나 일정 기간을 두고 선정하는 것보다는, 안전도시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심사 기준을 보고 있다”면서 “안전문화 333운동과 시민안전교육센터, 방재대학 운영 등은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안전시책으로, 국내 자치단체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물바다로 변한 농경지

7일 오전 해남군 화산면 연곡리 일대 농경지가 6일 내린 폭우로 물바다가 됐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雨...雨...雨... 오늘 120mm 더 온다

광주·전남 장맛비 피해 급증
산사태·침수 지역 안전 대비를

장맛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8일까지 광주·전남 지역에 내릴 12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남에선 많은 비로 지반이 물러지거나 산사태 등이 우려되는 곳도 적지 않은데다 수재민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8일 오전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정체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에 의해 비가 오다가 오전(9시~정오)께 대부분 그치겠다”고 예측했다. 8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지역 30~80mm 전남남해안 등 많은 곳에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비는 8일 오전에 그치지만, 오후(3시)부터 9일 사이 또다시 전남동부 내륙지역에 5~40mm의 소나기가 예보됐다. 지난 5일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광주에는 273mm, 해남 414mm, 진도 353mm, 완도 229mm의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8일 하루 최저기온은 23~25도, 낮 최고기온은 26~31도 분포를 보이겠으며 특히 습도가 높고,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1도 내외로 올라 더울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상·하수도 관거와 우수관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 대비하길 바란다”며 “아울러 붕괴와 산사태 가능성이 높겠고, 침수지역 감전사고에 유의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맥쿼리 “광주 도시가스 요금 산정 절차 존중”

광주시에 의견 전달 ... 자본구조 준수·고용 안정 등 약속

광주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해양에너지가 인수해 지역사회에서 반발을 사고 있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는 7일 도시가스 요금 산정 절차 존중, 자본구조 준수, 고용 안정 등을 약속했다.

맥쿼리는 이날 오후 광주시를 방문해 시 관계자들에게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맥쿼리는 광주시 관계자를 만난 뒤 경영 계획에 대한 의견을 참고자료로 배포했다. 맥쿼리는 의견문에서 “해양에너지 인수와 관련, 지역 사회가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도시가스 요금과 자본구조 준수, 고용, 지역사회 역할에

대한 경영 계획을 설명했다.

맥쿼리는 우선 지역사회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은 도시가스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도시가스 공급 비용산정 기준 및 주무 관청이 승인한 공급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해당 절차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자외적 인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맥쿼리는 제2순환도로 운영과정에서 논란이 된 자본구조 변경과 관련해서도 “도시가스사업법이 요구하는 자본구조 준수와 회사 경영상 재무상태

의 변동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시설유지관리, 도시가스 요금 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맥쿼리는 또 해양에너지의 부실화, 직원 고용불안, 노동환경 악화 등 우려에 대해서는 “1982년에 설립된 해양에너지가 오늘의 지위를 얻기까지 전력해 온 인직원을 존중하며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맥쿼리는 “도시가스 공급업은 시민 삶에 필수적인 공공재임을 이해하며 서비스 향상, 산업재해 방지, 미공급 지역에 대한 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지역사회 의 주요 이해 관계자인 지방 정부, 의회, 언론, 시민단체와의 소통뿐 아니라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역사회와 소통이 없었으며 맥쿼리에 인수 과정, 협상 내용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변함없는 클래스, 그 기대를 감탄으로.

Mercedes-Benz Certified 10주년 프로모션

고객 여러분의 만족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도록 특별한 혜택과 함께 10주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국내 수입차 최대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충족

Trade-in 프로그램

1년 / 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차량 매입 프로그램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 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원동)
소초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03번길 20(소초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원동)